

Engine51



Engine 51반

글 모음집 -5-1반-

엔진 5-1반
글 보러
놀러 오세요 ♡



Engine 51

1. 친구들과 야구장 간 날.....	강은서
2. 1반과 갯벌체험.....	김민주
3. 기대되는 필리핀.....	김사랑
4. 즐거운 도자기체험.....	김서윤
5. 오사카 여행.....	남시연
6. 아이브워드뮤 간 일.....	당예원
7. 가족여행.....	박하연
8. 신나는 속초 여행.....	이예나
9. 후추가 간 날.....	이지연
10. 필리핀으로 가족여행.....	최혜원
11. 모험과 신비의 나라 룩데월드.....	한다온
12. 신나는 제주도 여행!.....	황규아
13. 가족여행.....	강태울
14. 가족들과 첫 캠핑.....	김지완
15. 너도 나도 수영장!.....	김하엘
16. 반대항전 축구대회.....	박지오
17. 드디어 체육대회 1등!.....	박한성현
18. 대만여행.....	오승효
19. 5학년 1반의 체육대회.....	윤시후
20. 가족들과 평창여행.....	이규선
21. 프리덤 건담.....	임준서
22. 오대산 토종 다람쥐.....	한태민
23. 아빠랑 등산.....	이지민
24. 파자마.....	김지안
25. 일본 여행 간 날.....	정예인

친구들과 야구장 간 날

인천하늘초 5학년 1반 1번 강은서

8월의 어느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다. 왜냐하면 오늘은 친구들과 야구장을 가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2시에 차에 가서 기다렸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차에 타서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출발했다.

도착을 하니 너무 더워서 시원한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 경기 10분전에 나와서 자리로 가서 음료를 마셨다 마시고 친구들과 빙수를 시켜먹었다. 그러다가 경기가 시작해서 우리팀이 이기길 열심히 응원했다. 그러다가 4회초 상대팀이 홈런을 쳤다. 기분이 안좋아졌는데 5회말 우리팀이 홈런을 치더니 동점이 되어서 기분이 좋아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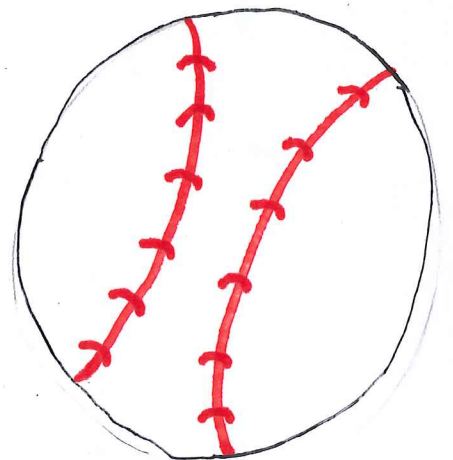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아빠가 사준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일도 먹었다. 그러니 배가 조금 불러서 다시 응원을 하는데 또 상대팀이 점수를 내서 당황했다. 그치만 우리팀이 점수를 낼수도 있으니 기대는 해봤지만 우리팀이 결국 kt 9점 ssg 3점으로 우리팀이 졌다..

정말 아쉬웠지만 불꽃놀이를 한다고 해서 자리를 옮겼는데 바로 불꽃놀이가 시작해서 재미있게 봤다. 본후 차에 타서 친구들을 데려다주고 집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야구장 가보니 재미있어서 다음에 또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4

19

95



5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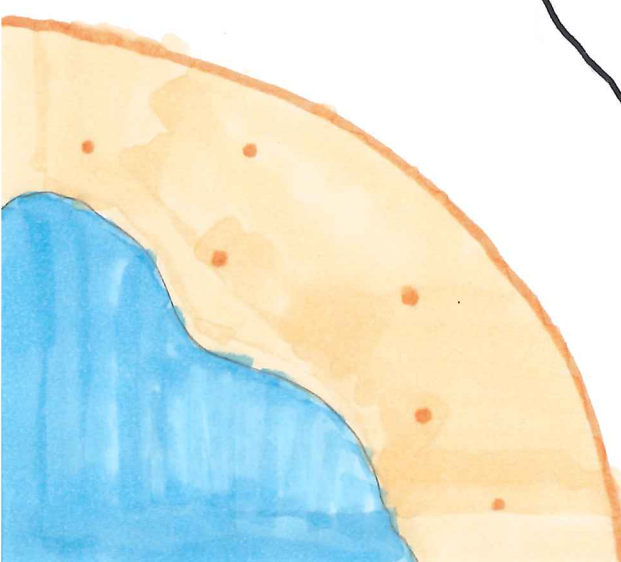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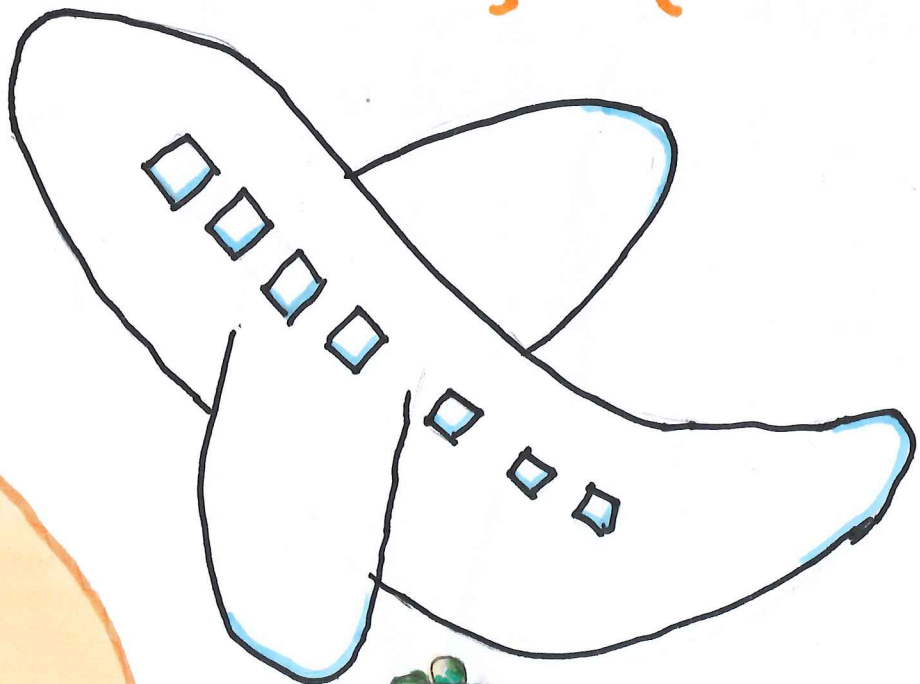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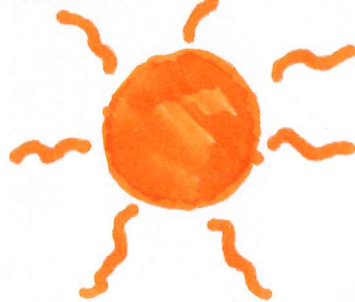
해도 아는 듯 아주 화창하고 짹짹한 어느 봄 날 아침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고, 우리반의 자랑스러운 반티를 입고...
'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학교로 갔다.
교실 안에는 먼저 일찍 온 아이들로 가득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아직 안 온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다렸다.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다보니 이미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와있었다.
버스 탈 시간이 다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버스를 탔다.
버스에 앉아 짹과 놀고 바깥 풍경을 보고, 멍 때리면서 가니 정말 순식간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내리고, 함께 갯벌 준비물을 받으러 갔다.
차례대로 삽, 장갑, 양말, 그물망을 받고 갯벌에 들어가기 위해 양말로 갈아신었다.
양말만 신고 갯벌에 들어가니 발 촉감이 신기하면서 이상했다.
미끌미끌해서 넘어질뻔 했지만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다.
조심조심 갯벌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조개를 열심히 캐려고 계속 팅지만 .. 쉬운일이 아니었다.
허리를 숙여 계속 곡갱이질을 하는데, 팔은 아프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고, 땀에서 너무 뜨겁고 더운데....!!
조개는 안 나오니까 미쳐 버릴것만 같았다:,,
열심히 캐고 있을 때 .. 저쪽에서 아이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있었다.
궁금해서 가보니 한 친구가 엄청 큰 대왕 조개를 찾은 거였다!!
난 너무 부러워서 나도 대왕 조개를 찾으려고 했지만 껍데기 밖에 나오지 않았다..
슬픈 마음을 뒤로 하고 난 그냥 작은 조개나 찾기로 마음 먹었다.
갯벌 체험 시간이 끝나고 갯벌에서 겨우 나왔다.
샤워장에서 깨끗이 발을 씻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간식을 나눠 먹었다. 피곤함을 참으며 겨우 학교에 오니 애들은 거의 다 피곤해했고 나 또한 정말 피곤하고 졸렸다.
이번 5학년 체험 학습은 생태계로 갔던 색다른 체험학습 이어서 갯벌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조개도 캘 수 있는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 5-1반의 추억은 갯벌체험으로 한칸 더 쌓였다!

기대되는 필리핀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3번

김사랑

해가 쨍쨍한 아침 '엄마 얼른나와' 내가 엄마께 말했다.엄마는 얼른 불을 끄고 나오셨다. 우리가족은 공항으로 출발했다.공항에서 엄마와 아빠는 환전하러 은행에 간 사이 나는 언니와 친구랑 놀고 있었다.엄마아빠가 돌아오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밥을 먹고나니 비행기에 탈 시간 이어서 비행기에 탔다.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기다리다보니 비행기가 이륙했다.필리핀에 도착하여 짐을 찾고 택시를 타고 숙소에 왔다 나는 바로 수영복을 갈아입고 언니와 놀았다.다 놀고 옷을 갈아입고 과일을 사러갔다.과일을 먹고 식당에 갔다. 그리고 마사지 샵에가서 마사지를 받았다.그리고 숙소를 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었다. 내 입맛은 아니여서 많이 먹지 않았다.그 다음 쇼핑몰에 가서 친구들 선물도 사고 사진찍는 곳에서 사진도 찍었다.이제 공항으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너무 재밌었고 새로운 경험이 생겨 좋았다.



즐거운 도자기 체험

인천 하늘초 5학년 1반 4번 김서윤

“짐 다 챙겼니?” 엄마가 물었다 “응, 이제 가자” 출발한지 얼마 안된거같은데 자고 일어나니 할머니 댁에 도착해 있었다.

할머니 댁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말했다 “도자기 체험해 볼래?” “그래” 나와 엄마 동생과 함께 도자기 공방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며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 먼저 흙을 주셨다. 흙을 만져보니 찰흙 느낌 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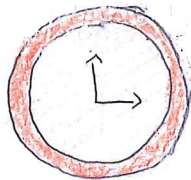
찰흙과는 다른 거라고 하셨다. 나는 얘기를 나누다 펭귄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펭귄을 만드는데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만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잘되지 않아 답답했다. 그런데 계속 고치다 보니 펭귄이 만들어 졌다. 다 만들고 나서보니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부모님께서도 칭찬을 해주니 뿌듯했다. 그 뒤로 더 만들자 2시간이 훌 지나갔다.

나는 다 만든걸 바로 가져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자기를 굳히는데 시간이 걸려 다음에 와서 가져가기로 했다.

바로 가져가지는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이런 체험을 시켜주신 부모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일본 오사카 여행!

인천하늘초등학교5학년1반5번남시언

9월3일 드디어 오사카에 간다!

3박4일동안 압을옷과 필수용품을 챙기고 오전11시쯤 집을 나와 인천공항에 가 11시40분쯤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타 간사이공항에 도착해 숙소로 가 짐을 풀고, 근처 기거리에 있는 우동집에가 우동을 먹었다.우동을 먹고, 초밥집에 갔다. 거기서 초밥을 시키면 앞에서 초밥을 만들어주는 유명한 초밥집이었다. 처음으로 그런데서 먹으니 신기하고 더 맛있었다.초밥과 우동을 먹고 숙소 앞에 있는 편의점을 털어 숙소로 돌아왔다.숙소에는 온천이 있어서 온천에 들어가 피로를 조금 풀었다.피로를 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일본 만화를 보고 마스크팩을 붙이며 잠을 청했다.

둘째날 아침 우리는 아침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유니버셜시티로 갔다. 거기에는 마리오, 해리포터, 쥬라기 월드,산리오등이 있었다. 마리오빵,루이지빵,피치 음료수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다. 거기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쥬라기 월드에 있는 360도 돌아가는 놀이기구였다. 줄은 긴시간을 섰지만 기다린만큼 너무 재밌었다. 하루를 거기서 보내고 집에 올 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지하철을 타고 건물안에 있는 돈까츠 집에 가 맛있는 돈까츠를 먹었다. 돈까츠를 먹고 쇼핑을 조금 했다.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 30분 동안 길을 헤매다 숙소앞에 있는편의점을 보고 간신히 숙소를 찾아 잘 돌아갔다. 숙소로 돌아와 너무 힘들어 발에 물집이 잡혔다. 온천에 가 피로를 풀고 어제보다 일찍 잠들었다.

셋째날 아침 어제처럼 일찍 일어나 오사카를 가면 꼭 가야하는 길거리 시장을 갔다. 거기서 소바,우동,수플렛을 먹었다. 수플렛이 너무 맛있어 내 인생 최대 간식이 되었다. 그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돈키호테를 가 일본 간식과 선크림등 화장품을 샀다. 길을 갔다 다리가 너무 아파 빨리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밥은치킨과,빵을 먹었다.그리고 일본영화를 마저 보고 잠을 청했다.

드디어 마지막날! 짐을 싸고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지하에 있는 쇼핑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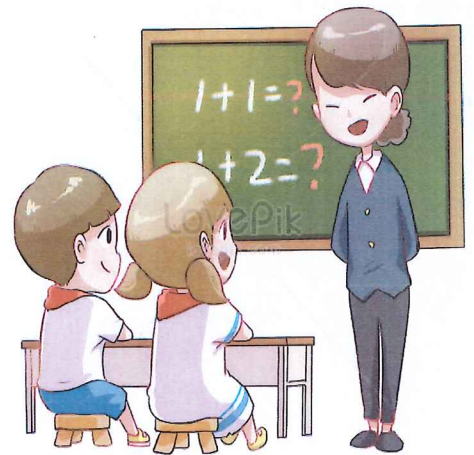
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내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포켓몬숍과,마리오숍에 갔다.
거기서 엄청나게 귀여운 인형 두 개를 사고 버스를 타 간사이 공항으로 갔다.
갑자기 공항에 비행기가 6시간 지연되서, 하루를 공항에서 보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 있는 편의점에서 젤리,빵,초콜릿을 샀다. 드디어오후9시에
비행기를 타서 오후1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3박4
일 동안 힘들고 재밌었다.이런여행을 시켜주신 부모님 존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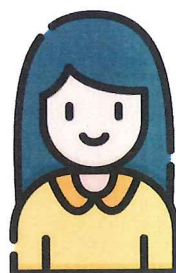


엔진

5-1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



아이브 위드뮤 간 일

인천하늘초등학교5학년1반당예원

학교에 안간날이다.그런데 용산위드뮤에 아이브 럭키드로우(아이브스위치3차) 기간이 딱 맞았다.그래서 용산위드뮤에 엄마,나,동생 셋이서갔다.도착을 하고 아직 문이 안열어서 밖에서 기다렸다.

위드뮤는 아이돌 앨범과 응원봉 등이 파는 온라인,오프라인 앨범 사이트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아이브와 에스파이다.

이번 위드뮤가 4번째로 간날이었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그래서 나와 동생은 신나서 빨리 위드뮤를 찾아보았다.

평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다.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앨범을 사고 럭키드로우를 했다.

럭키드로우를 하는 방법은 일단 앨범을 사고 싶은 만큼 산다음 앨범수 만큼 코인을 주시는데 앨범 1세트를 사면 랜덤으로 한멤버의 폴라로이드 한 장을 받을 수 있고 코인을 가지고 럭키드로우 기계로 가면 되는데 코인 넣는 곳에 코인을 넣으면 럭키드로우포카를 12장중 랜덤으로 뽑을수 있다.

나는 한세트를 사고 럭드를 했는데 결과는 마라탕집에서 보기로하였다.

마라탕을 기다리면서 포카 결과를 확인했다.앨포는 안봐도 된다.일단 폴라로이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진언니가 나왔다.럭드 4장은 축제버전 리즈,식빵버전 유진,축제버전 이서,식빵버전 원영 이렇게 나왔다.그리고 이날 아이해봉도 샀다.

이제 앨범까는걸 다하고 마라탕을 먹었다.다 먹고 집에 돌아왔다.



가족여행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7번 박하연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이었다. 나와 가족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니 너무 졸렸다. 짐을 다 싸고 차에 탔다. 차에서는 엄마가 가져오신 김밥을 먹었다.

목적지에 가려면 3시간 30분이나 걸린다고 하였다.

가다 보니 휴게소가 있었다. 휴게소에서는 화장실 들린 후 소떡소떡과 알감자를 먹었다. 다시 차에 타고 가다 보니 잠에 들었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사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엄마가 나를 깨웠다. 나는 제일 먼저 달려가 구경했다. 그리고 엄청 큰 수영장이 있어서 놀러 들어갔다. 엄마가 튜브와 공을 던져주셨다. 수영장이 깊어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놀았다.

한참 놀던 중에 벌써 저녁이었다 아쉬웠지만 그만 놀았다. 씻고 나와보니 아빠가 고기를 구워주셨다. 수영하고 먹는 고기는 참 맛있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침이었다. 나와 가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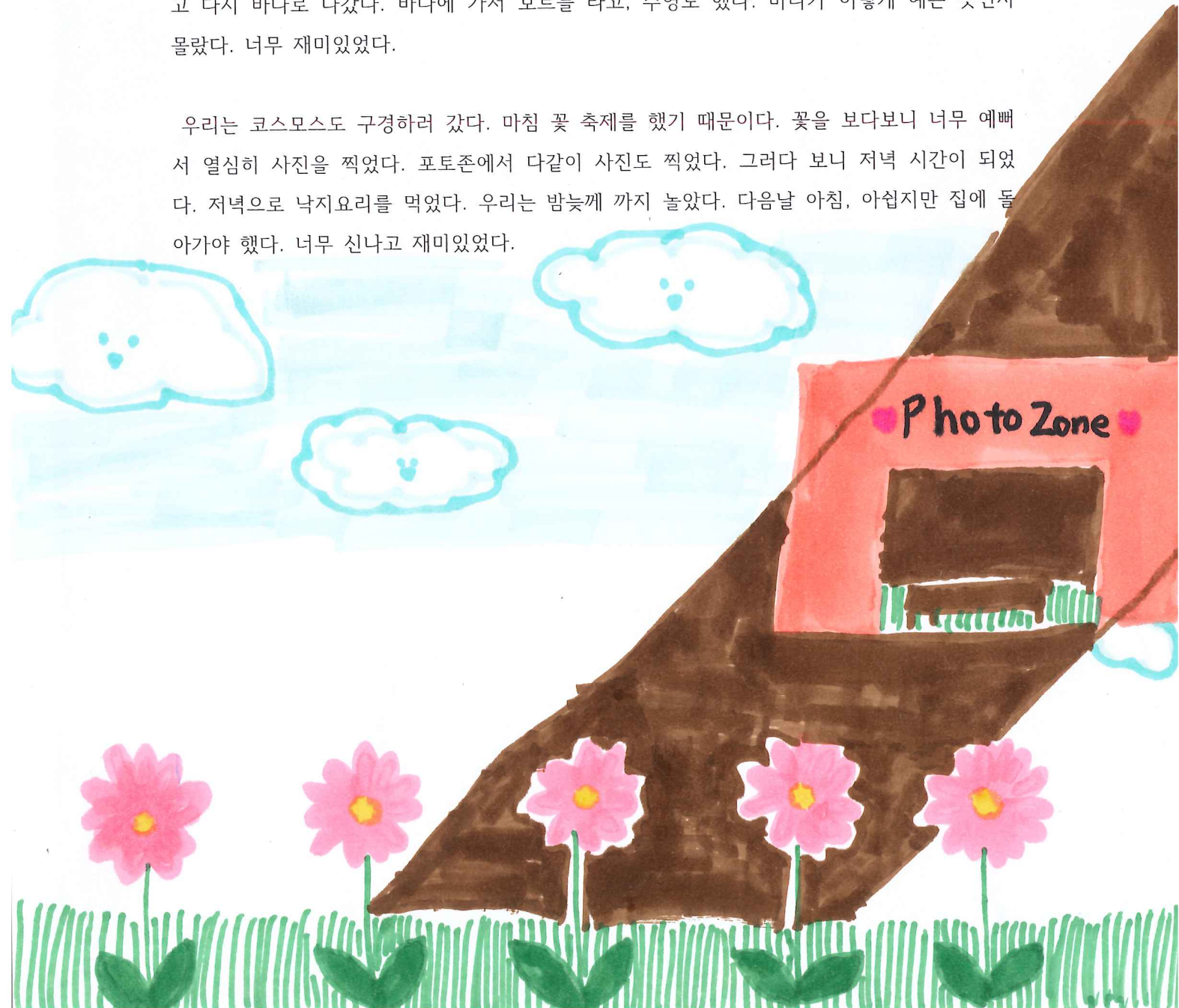
신나는 속초 여행 ☀

인천하늘초등학교 5-1반 8번 이예나

9월의 어느 날, 하늘에서 해가 내리쬐지만 기분 좋은 선선한 날씨였다. “집 다 챙겼니?” 우리가족은 짐을 싸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다. 나는 같이 가기로 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함께 출발했다. 우리는 신나게 수다를 떨며 이동했다.

드디어 속초에 도착했다. 우리는 먼저 고기를 먹으러 갔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 가서 보트를 타고, 수영도 했다. 바다가 이렇게 예쁜 곳인지 몰랐다. 너무 재미있었다.

우리는 코스모스도 구경하러 갔다. 마침 꽃 축제를 했기 때문이다. 꽃을 보다보니 너무 예뻐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포토존에서 다같이 사진도 찍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다. 저녁으로 낙지요리를 먹었다. 우리는 밤늦게 까지 놀았다. 다음날 아침, 아쉽지만 집에 돌아가야 했다.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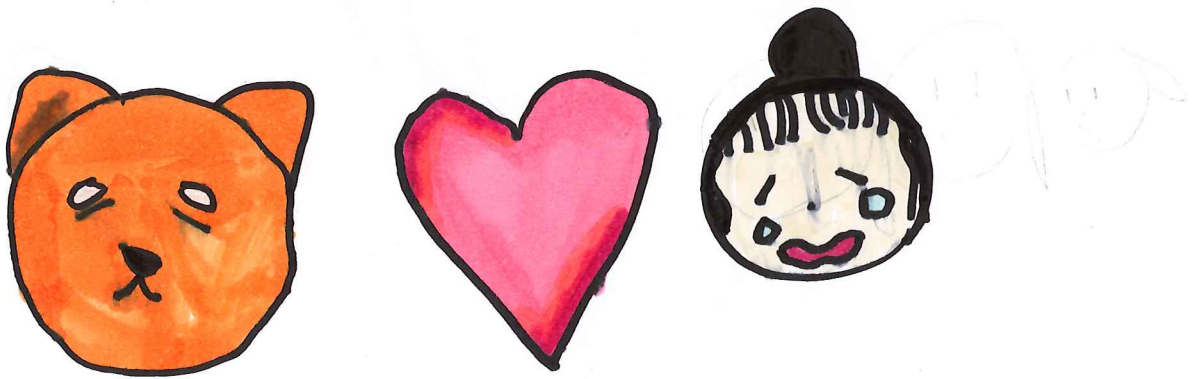


후추가 간 날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9번 이지연

오늘은 비가 우두 두 두둑 내린다. 학원을 마치고 언니 집으로 갔다. 후추의 짐이 보였다. 후추는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나 있었다.

나는 언니 집에 가자마자 후추를 보며 울었다. 언니는 '그럴 거면 집 에가' 라고 했지만 후추를 배웅해야 해서 집에 가진 않았다. 후추가 갈 시간이 왔다. 언니집 아파트 후문으로 나가서 후추 데리고 갈 사람을 기다렸다. 후추를 데리고 갈 사람들이 왔다. 후추를 데리고 갈 사람이 네명이나 왔다 후추를 보낼 때 너무 슬퍼서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후추를 보낼 때 20-30분 정도 걸렸지만 후추의 마지막 눈빛이 너무 슬펐다. 후추를 잘 보내주고, 언니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자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먹으면서 언니 집에 갔다. 후추가 가서 행복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심하게 장난치지 않으면서 지내면 좋겠다.



후추야 잘 있어♡

사랑해♡

Come On



들어와
가족끼리

필리핀으로 가족여행!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1반 10번 최혜원

9월 어느날 새벽, 드디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는날이었다.우리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다.3박 4일로 조금 오랫동안 가는 것이다보니짐이 생각보다 많았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새벽 4시 즈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떠났다.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콜라를 먹었는데 비행기에서 먹으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먹는것보다 더 맛있었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바로 호텔로 갔다.호텔에서 짐을 풀고 잠을 잤다.비행기에서는 시끄럽기도 했고 잠자리가 편하지가 않았는지 호텔에서 엄청 오래 잠을 잤다.

그날 저녁에는 야시장에 갔다.야시장에는 신기한 장난감도 팔았고, 맛있는것도 많이 팔았다.근데 나는 그중에서 실로 머리카락을 꾸며주는 가게에 들어갔다.실로 땀은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지를 하고 싶어3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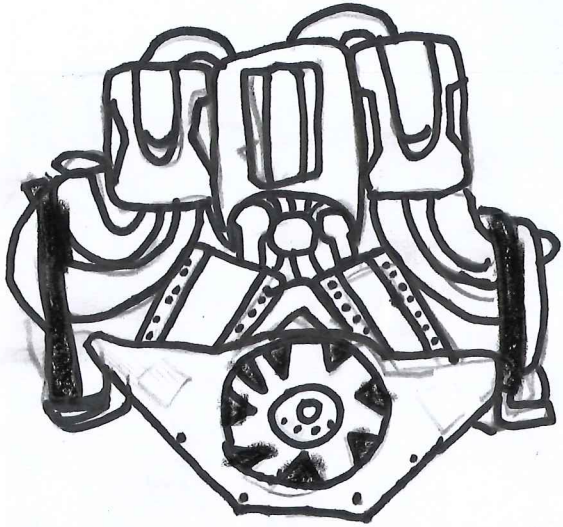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빵이 너무 맛이 있었다.조식을 다 먹고 나서 바다에 갔는데 모래가 흰색이여서 깜짝 놀랐다.한국의 모래는 갈색인데 필리핀의 모래는 흰색이라서 뭔가 더 예뻐고 특이해서 좋았다.그리고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샵에 갔다.나는 바다에서 조금더 놀고 싶어서 엄마,아빠께 괜히 짜증을 냈다.하지만 마사지를 받으니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고 잠이 와서 잠이 들었다.마사지를 한 것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가서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날 오후에 키링을 판매하는 상점을 발견했다.거기에서는 아까 바다에서 봤던 흰색 모래가 들어있는 키링을 판매하고 있었다.그 키링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다.

다음날 수영을 하고 라면을 사먹으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한국라면이 가득해서 신기했다.다 먹고 호텔에서 쉬다가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서 체크아웃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갔다.

필리핀에 갔다와서 것을 많이 보고 배워서 정말 좋았던 것 같다.그리고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곳을 보내주신 엄마와 아빠께 감사드리고 이번여행을 통해서 가족간에 사랑이 느껴져서 좋았다.



Engine 51반



5-1반 금모음집~



HANIL

★ 5-1반 ★





모험과 신비의 나라 룯데월드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11번 한다운

터벅터벅,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탔더니 몸이 빠근했다. 하지만 조금만 걸으면 곧 룯데월드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너무 설렜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드디어 룯데월에 도착했다. 체감상 한 시간을 걸었지만 핸드폰의 시간을 보니 10분이 지나있었다. 룯데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룯데월드의 홍보 속 대사인 '모험과 신비의 나라'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예약 먼저 할까?"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얼른 달려가서 부모님 옆에 꼭 붙었다.

'후렌치레볼루션'이라는 롤러코스터가 예약제여서 예약을 했다. 마침 사람이 없어서인지 얼른 탔다. 롤러코스터에 타서 보니 "괜히 탔다"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다 타고 나오는 계단실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았더니 정말 신나보였다. 그래서 부모님께 한 번 더 예약해달라고 여쭙어보았다. 바로 돌아온 부모님의 흔쾌히 예약을 해주셨다. 한 번 더 예약을 하고 바깥으로 나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운행을 하지 않았다. 운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침에 비가 와서 정상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셨다. 아쉬움을 남겨둔 채 밥을먹고 오기로 했다. 밥을 다 먹고 난뒤 아까 전 예약을 한 롤러코스터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것 먼저 타고 바깥으로 나가기로 했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다행히도 정상운행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자이로드롭'과 룯데월 대표 놀이기구인 '아틸란티스'를 탔다. 거의 모든 놀이기구를 타고 1층으로 나갔다.

1층에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배워 볼 겸 추억도 쌓을 겸 스케이트를 신었다. 스케이트장 안에 갔더니 JTBC방송국 카메라가 있었다. 그래서 생애 첫 뉴스에 나왔다. 두 시간쯤을 타고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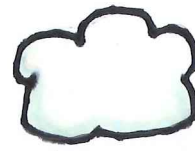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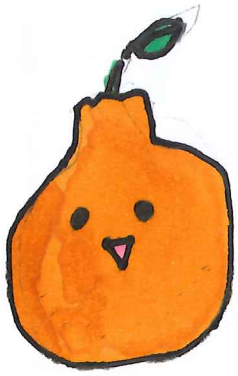
룯데월드를 나오니깐 멋진 야경이 나왔다. 얼른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내가 나온 뉴스를 보았다. 이 덕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피곤하실 텐데도 같이 놀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했고, 매우 재미있던 하루였다.



포스트링

한다운

룯데월드



인나는 제주로 여행!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12번 황규아



“규아야~빨리나와~!” ‘네 갑니다~’ 우리가족은 오늘 제주도를 간다. 여러집을 챙기고,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를 타기전 기다리면서 아침식사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뒤, 화장실을 들리고, 비행기를 탈 준비를 했다. 비행기를 타는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설레고 긴장됐다. 비행기를 타서 너무 떨렸다. 내가 말했다. “엄마 제가 창가자리 앉으면 안돼요?” ‘그래 앉아’ “오예~!” 창가자리에 앉아서 비행기 밖을 보고 있었다.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비행기가 출발했다. 점점 하늘을 나며 떠다녔다. 나는 신기해서 밖에 사진을 찍다가 잠이 들었다. 잠을 자다가 잠이 깰때쯤, 비행기가 착륙할때 쯤이었다. 도착한뒤, 자동차를 빌리고, 자동차를 타고 마트를 갈 때 창밖에 건물이 많고, 높아서 신기했다. 마트에서 장을본뒤, 펜션에 도착했다. 여름이라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수영복을 입고, 준비운동을 한뒤, 수영장에 뛰어들었다. 수영하는중에 “버블 타임”이라고 하며 거품을 뿌려줄 때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뒤, 펜션 안에 작은 수영장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수영하다 씻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식사로 펜션에 있는 뷔페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아쉬운 마음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재밌고 신기한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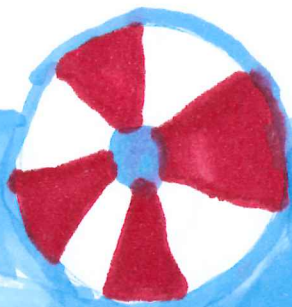
가족여행

인천 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13번 강태을

“얘들아, 짐은 다 쌌니?”. 오늘은 우리 가족과 할머니 댁이랑 같이 제주도로 여행가는 날 이다. 우리 집 반려견인 후추와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는거라 떨 리기도 하고 기대되었다. 출발해서 공항에 도착 했다. 짐을 맡기고 있는데 후 추가 킁킁 거리더니 오줌을 싸버렸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얼른 치우 고 비행기에 탔다. 가는동안 후추는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냈다. 제주도에 도착 해서 렌트카를 빌리고 아침을 먹으러 갔다. 아침으로 묵은지 고등어찜을 먹었 는데 정말 맛있고 맵지도 않아 아침으로 정말 좋았다. 숙소로 도착해서 짐을 들고 올라갔는데 창문이 커서 바다가 엄청 크게 보이고 2층 3층도 쓸 수 있어 서 엄청 좋았다.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곳을 찾은지모르겠다. 점심때는 밖에서 돌아다니며 놀았다. 저녁은 올레시장 에서 산 딱새우회, 회, 흑돼지 주먹밥, 막 창 등을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밤에는 핸드폰도 하고 누나와 같이 놀았다

다음날은 해녀의 집에서 전복죽을 아침으로 먹고 앞에 있는 바다에서 수영했 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고동을 잡아 삶아 주었다 맛없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맛있어서 놀랐다. 오후 3시쯤 흑돼지를 먹고 올레시장에서 다양한걸 사갔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망고를 주셨다. 망고는 정말 달고 맛있었 다.

다음날 아침 코코 마마에서 랍스터를 먹고 공항에 갔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은 순대국밥을 먹었다. 할머니와 같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기 전에 내가 백숙을 사드렸다.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다. 내가 생각 하기에는 제일 소중한게 할머니, 후추, 가족과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것 같다.





가족들과 첫 캠핑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이름:김지완

9월 어느날 가족들과 첫 캠핑 가는 날이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엄마는 우리에게 “다 챙겼지?”라고 말했다. 우리는 “응”이라고 말했다. 캠핑장으로 출발했다. 2시간이나 걸렸지만 휴게소에 들려 소떡소떡과 10 원빵을 먹어서 참을 수 있었다. 창문을 보니 숲속 보였다. 엄마는 “거의 다 왔다”라고 말했다. 캠핑장에 오고 엄마와 아빠는 텐트를 친다고 말하고 우리는 가까운 수영장에 왔다. 우리는 물을 청범청범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다 놀고 가려는데 우리는 개구리를 봤다. 신기했다. 텐트로 가보니 고기와 오뎅국이 있었다. 우리는 맛있게 먹고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고있는데 비가 많이 와 텐트에 물이 찼다. 그리고 얼마후 비가 그쳐 나는 불꽃놀이랑 마쉬멜로우를 구워 먹었다 얼마 지나고 나는 잠이 들었다. 두번째날때 너무 더워 우리 가족들은 애견동반식당 홍시라는 식당에 가 돈까스와 홍시피자와 감자튀김을 먹었다. 우리는 너무 더워 수영장에서 놀았지만 너무 더워 우리가족들은 텐트를 정리하고 집으로 갔다. 가족들과 첫 캠핑이어서 기분이 좋았고 또 하고 싶었다.



너도나도 수영장~^^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15번 김하엘

오늘, 드디어 수영장 가는 날!!! 날씨가 아주 좋고 마음이 들썩거리고, 신나고, 기대되는 마음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 물론 우리 가족만 가는 것은 아니다. 내 교회 친구 내 (이름은 비밀^^) 가족도 함께 간다. 차를 타고 출발했다. 10분 정도(그보다 많을 수 있다.) 걸렸다.

“드디어 도착!!!” 수영장에 도착했다. 나는 친구를 만나 인사하고

친구네 부모님(집사님)께도 인사드렸다. 수영장 쪽으로 가보니, 나는 순간 놀랐다. 왜냐하면, 에어바운스가 수영장보다 컸기 때문이다. 나는 일단 자리(밥 먹고 설 곳)에 갔다, 몸을 좀 풀고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물이 시원했다.

물에서 잠수하고, 물총 싸움도 했다. 그리고 좀 놀다가 에어바운스로

가봤다. 엄청 말랑했다. 미끄럼틀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엄청 낮은 암벽

등반(너무 낮음) 같은 것도 있고, 장애물 코스도 있었다. 가장 먼저, 미끄럼틀

을 탔다. 빨라서 재미있었다. (올라가는데 좀 힘들었다.) 그리고 장애물 코스 하는데, 개구리가 있어서 포기했다.

그리고 점심으로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또다시 놀았다. 놀다 더워서 시원한 장소를 찾고 있는데, 마침 집처럼 생긴(에어바운스 안에 있었다.) 곳 안에서 시원한 물이 나와, 거기서 쉬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했다.

한참 뒤에 마침, 부모님들이 라면을 끓여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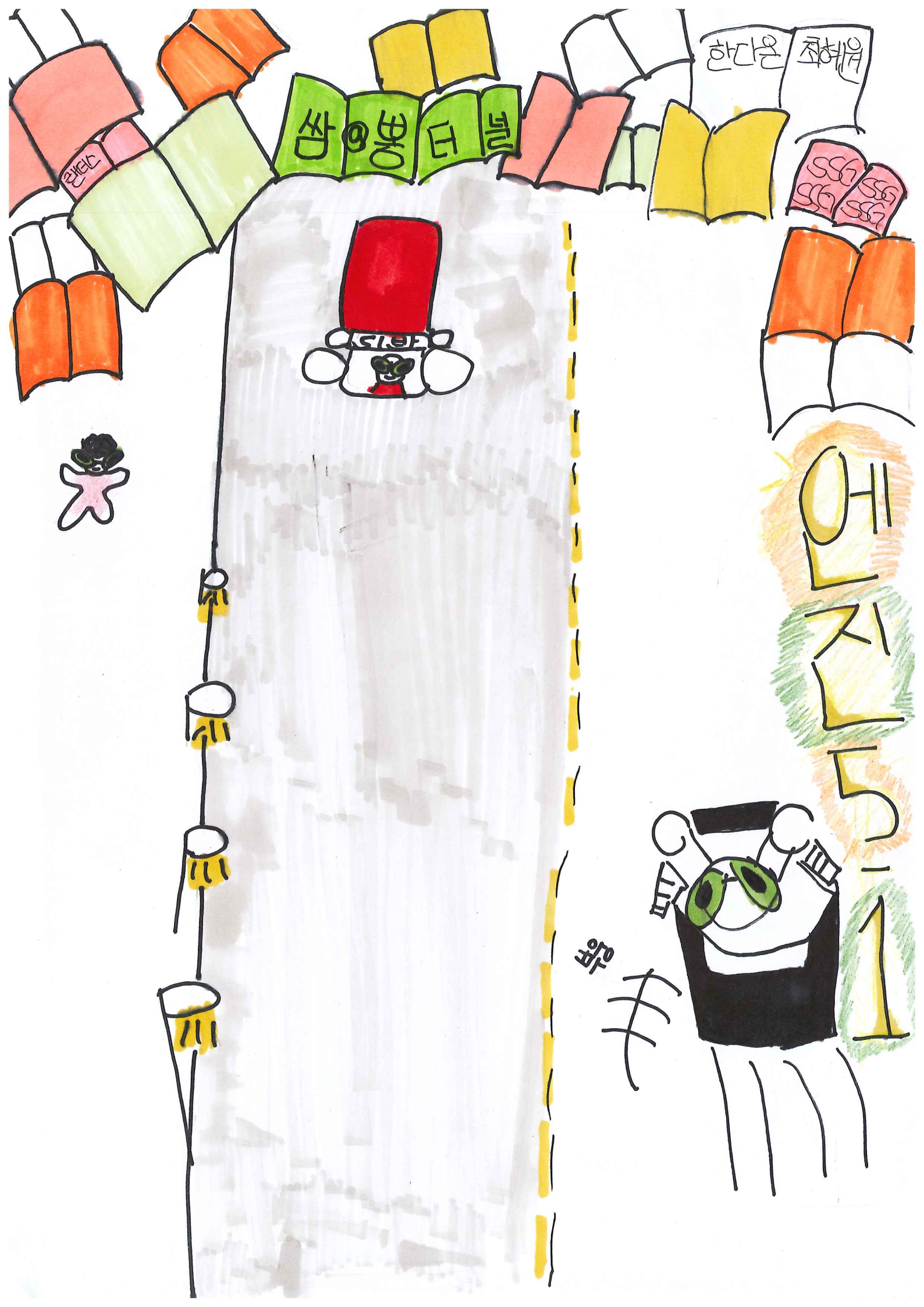
(과일도 먹고 식혜도 마셨다.) 또다시 놀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서 잠시 쉬었다.

그리고 친구랑 물총 싸움, 공놀이, 잠수하고 놀았다. 그리고 장애물 코스를

친구와 동생과 함께 2번이나 다 통과했다. (엄청 힘들었다.ㅠㅠ)

그런데 하필, 마지막에 머리가 아파서 쉬었다.ㅠㅠ 그리고 수영장이 끝나서 따뜻한 물로 몸을 (수영복 입고) 행궜다.

집으로 돌아갔다. 아쉽지만 즐거운 하루였다.^^





반 대항전 축구대회

인천 하늘 초등학교 5학년 1반 16번 박지오

10월 어느 날 드디어 반 대항전 축구대회가 열렸다.

우리는 첫 번째 상대로 4반을 만났다. 4반 상대로는 4대2로 우리팀이 이겼다.

우리는 3반, 5반을 차례대로 이기며 우승 경쟁을 했다.

우리는 경기 시작하고 패스를 하면서 골을 넣으려고 했지만 상대는 쉽게 골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지만 정윤후의 골로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허유준의 단독돌파로 다시 동점이 되었다. 골을 넣고 싶었지만 상대가 수비를 너무 잘해 후반 추가시간까지 동점이었다.

하지만 윤무영이 얻은 프리킥을 정윤후가 차 골을 넣었다. 우리는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를 하면서 느낌점은 끝까지 도전하면 무조건 된다는 걸 느꼈다.



M

M

M

M

M

M

M

M

M

M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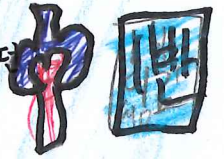


프리미어 체육대회 1등!



민원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17번 박한영

그날은 2024년 5월의 어느 날 이었다. 그 날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 2024학년도 체육대회 5학년 대회 날이었다. 나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오자 친구들이 1반의 응원봉을 들고 응원 연습을 하고 있었다. 또 어떤 친구는 1반이 이기는 부적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던 실력을 뽐내려 줄다리기 경기장으로 향했다. 5학년 5반과의 줄다리를 하였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가 지고 말았다.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킥볼 경기장으로 향했다. 우리는 5학년 4반과 치열한 결투를 벌이며 대치하고 있었지만 경기 후반에 가면서 4반과 점수 차이가 벌어져 꽤 많은 차이로 우리 반이 패배했다.



우리는 멘탈이 탈탈 털려진 상태로 줄넘기 연습장에 왔다. 여자들은 이미 줄넘기 연습장 구석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4반의 반칙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평범하게 줄넘기 연습을 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었다. 나는 '저도 즐겼으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줄넘기 연습에 동참하며 농담도 하였다. 그 결과 줄넘기 기록은 약 120회가 되었다.



여자들이 겨우 멘탈을 잡았다. 그 후 계주 시간이 되어 운동장으로 향해 남자 여자 두 줄로 섰다. 하지만 우리반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너무 많아 피지컬 차이가 났다. 그 결과 우리반은 막판에 뒤에서 1등, 앞에서는 7등을 기록하며 체육대회를 전부 다 패배로 기록하였다.



우리는 침울한 마음으로 5학년 1반으로 돌아와 증여된 포카리스웨트를 체육대회의 비참함을 이겨내주는 용도로 사용하며 체육대회는 마무리되었다. 열심히 준비한 체육대회였는데 전부 패배하여서 기분이 안좋았지만 계주는 뒤에서 1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이 이번일을 계기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대만 여행

인천 하늘 초등학교 5-1반 오승효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이다. 오늘은 대만 여행을 가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한다. 일단 화장실에서 양치와 세수를 하고 캐리어를 싣 뒤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갔다.

대만의 타이베이라는 수도권 지역의 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서 관광버스를 탄 뒤 대만의 전통시장에 갔다.

그곳에 가니 특이한 음식이 많았다.

예를 들면 취두부를 이용한 고기 또는 과일 주스 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과일 컵을 샀다.

그리고 밤늦게 호텔에 들어가 잠을 잤다.

둘째 날 에는 대만의 박물관과 시장에 갔다.

박물관에서는 대만의 황제가 사용한 물건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왕의 금관과 술잔, 의자, 가정용품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밤에 간 야시장에는 해산물과 과일, 또 음식이 있었다.

그리고 호텔에서 잠을 잤다.

마지막 날에는 면세점 투어를 하면서 간식을 사고 풍등 날리기 체험을 했다.

그리고 호텔에 간 뒤 짐을 챙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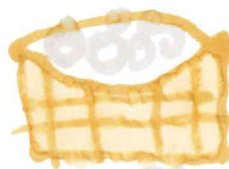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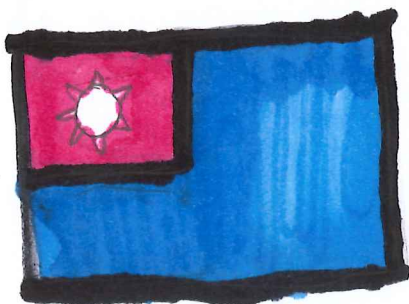
다음날....

공항에서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한 뒤 한국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고 나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반겨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대만에서 산 간식을 나누어 먹었다.

너무 즐거웠다.



5학년 1반의 체육대회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19번 윤시후

햇빛이 짹짹한 어느 날 체육대회가 시작했다.

체육대회 날 학교 가는 게 설렜다.

이긴다는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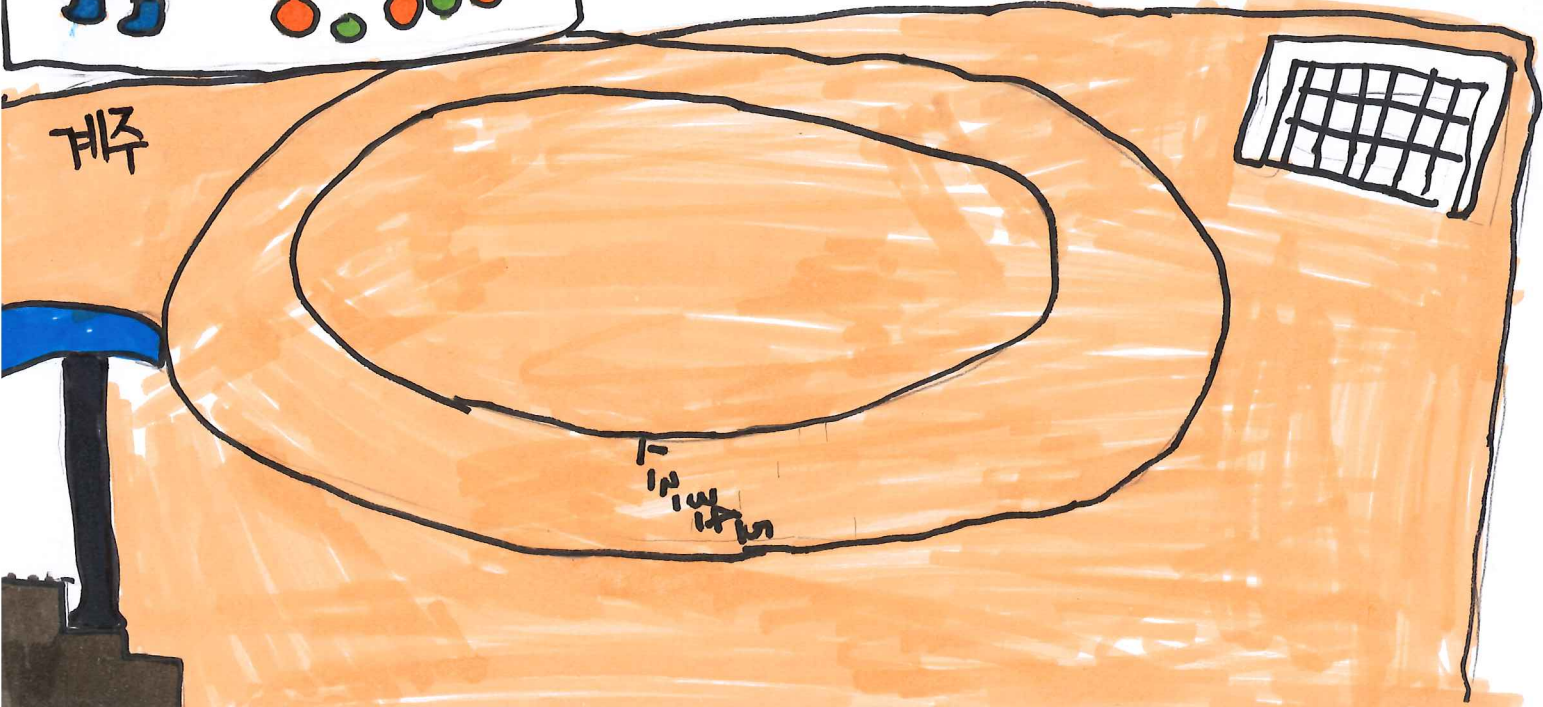
교실에 갔더니 여자애들이 먼저 와서 했다.

줄넘기는 호흡이 잘 맞아서 뿌듯했다. 전략 줄다리기는 5반이 이겼다.

2교시 에는 4반과 킥런볼을 했다. 4반이 너무 잘해서 압도적으로 졌다.

여자애들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저서 그런지
점심이 맛있지 않았다. 밥을 먹고 계주를 했다. 계주를 했는데 초반에
1등을 하다가 점점 뒤쳐졌다. 그래서 꼴등을 했다.

너무 아쉬웠다.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좋은 성적이 나왔을 텐데
체육대회는 이렇게 끝났다. 체육대회는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겁고 재미있고 신났다.



가족들과의 평창여행

인천 하늘 초등학교 5학년 1반 20번 이규선

“다 챙겼니?” 엄마가 물으셨다. “네” 내가 대답했다. “그럼 출발하자”

아빠는 평창에서 우리가 묵을 곳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셨다. 방에다 짐을 풀고있을 때, “오셨어요?” 누군가 오신 모양이었다. 친척들이 다 모였다. 다음 날 무엇을 할지 정하기 위해서였다.

친척들과 우리가족은 2시간~4시간 운전한 덕에 다들 힘드셔서 빨리 주무셨다.

다음 날 아침, 아침을 먹은 후 워터파크에 갔다. 워터 슬라이드도 타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5시간 정도 놀았는데 밥이 비싼게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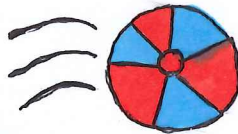
숙소로 돌아온 후,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다. 오삼불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저녁을 다 먹고, 숙소로 돌아온 후, 야식을 먹으며 놀고 새벽 1시쯤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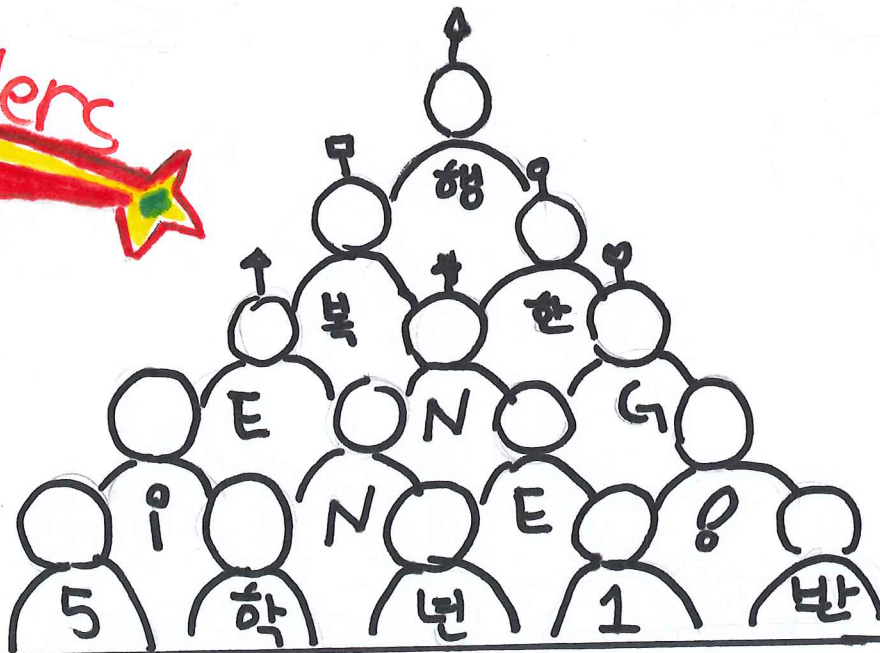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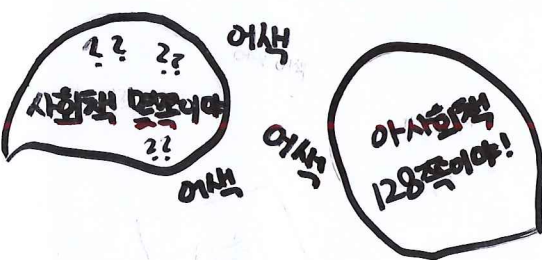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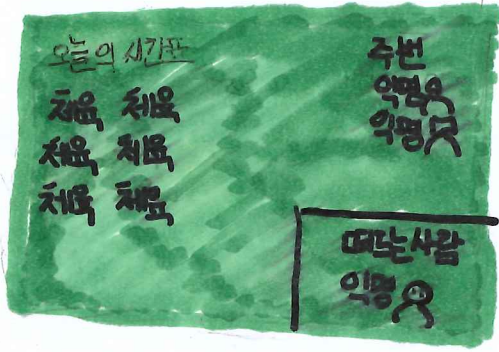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뒤, 점심을 먹고 디저트도 먹은 후 헤어졌다.

그 후, 가족들과 인형박물관에 가서 옛날에 유명했던 인형들을 보았다.

이렇게 여행하게 해주신 엄마 아빠께 감사하고, 다음에는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ENGINE51



5-1

그 모음집

<프리덤 건담>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1반 21번 임준서

나는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기고 멋진 임준서다. 내가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할머니댁에 가서 동그란땡을 만들고 9시쯤에 잤다.

그리고 5시에 일어나 제사를 지내고

절을 올린후에 밥을먹고 나서 할머니하고 고모가

추석선물을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홈플러스에

갔다. 먼저 할머니는 내옷두벌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좋아하는걸 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평소에 건담맞추는걸

좋아해서 나는 건담을 사기로 했다.나는 무슨건담을 살지

고민하다가 날개가 멋진 프리덤건담을 사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6시간에 걸쳐 프리덤건담을 완성했다!!!!!!



오대산 토종 다람쥐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22번 한태민

“이제 출발해도 되지?” “그래”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 가족과 짐을 다 싸고 오대산으로 출발을 했다. 도착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휴게소를 계속 들려야 된다. 첫 번째 휴게소를 지나치고 두 번째 휴게소에 들렀다. 나는 휴게소에 처음 와보아서 신기했다.

약 5시간이 걸려서 오대산국립공원에 도착했다. 도착했는데 온도가 무려 섭씨 19도까지 떨어져서 추웠다. 강원도라 추운 것 같다. 오대산에는 계곡같이 생긴 것들이 보여서 자연이 느껴져 좋았다.

산책을 하다가 토종 다람쥐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손에 땅콩을 쥐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었는데 촉감이 엄청 좋았다. “엄청 신기하다!” 나는 엄청 신이 났다. 그리고 뒤늦게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문고를 봐버렸다. 어쩐지 다람쥐 살이 많이 찼다 했다.

이제 산에서 가면서 휴게소의 음식 떡볶이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다음엔 산과 강릉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동해바다가 강릉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아빠랑 등산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1반 이지민 23번

아빠가 나에게 물어봤다. 등산을 가자고 했다. 그래서 난 알겠다고 했다. 아빠랑 가면서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했다. 같이 탔다. 이제 등산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다 하다가 끝까지 올라왔다. 대화를 나누고 다시 내렸갔다. 이제 집에 걸어가서 아빠 손을 잡고 내렸갔다. 하다가 발을 스쳤서 미끄러졌다. 아빠가 나를 얻고 갔다. 하필 그땐 피가 났다. 그래서 아팠다. 집에서 아빠가 치료해 주셨다. 그래도 아빠가 너무 고마웠다. 아파서도 등산을 해서 좋았다.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엄마와 동생이 안가서 안 좋았다. 그래도 아빠랑 가서 좋았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파자마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 1반 24번 김지안

햇빛이 쨍쨍한 여름 어느 날 친구와 파자마를하기로 하여서 친구 아버지(삼촌)께서 데리러 오셨다.

친구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친구한테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데리러 갔다.

파자마를하기로 한 친구들을 만나고 사진 몇 장을 '찰칵' '찰칵' 찍었다.

친구의 집을 도착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수영장으로 기대를 감추고 들어갔다.

잠수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영장에서 2~3시간 놀았다.

수영장에서 다 놀고 난 뒤 피구를 하였다.

근데 공이 화분 쪽으로 가서 화분이 "쨍그랑!!" 깨졌다.

2~3초의 정적이 흐른 뒤 우리 모두 소파로 와다닥 뛰어갔다.

우리는 친구 어머니와(이모) 친구 아버지(삼촌)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안 다쳤으면 됐다고 이모와 삼촌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피구는 그만하고 뽀로로를 보았다. 은근히 재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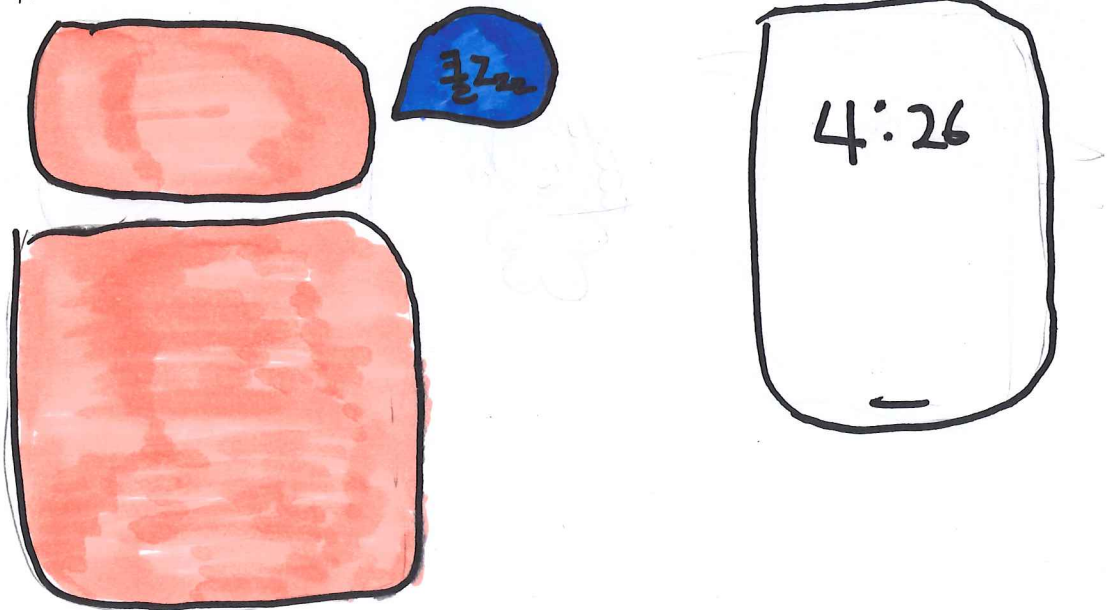
마당에서 고기를 먹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브롤스타즈와 루미큐브를 핸드폰으로 하였다

게임을 그만하고 랜플, 진실게임 등 소통이 되는 걸 하였다.

그리고 자기 전에 친구들과 브롤스타즈를 하고 새벽 4시쯤 잠들었다.

그다음 날 점심 먹고 헤어졌다.

친구 부모님께서 엄~~청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애들이랑 다음에 파자마를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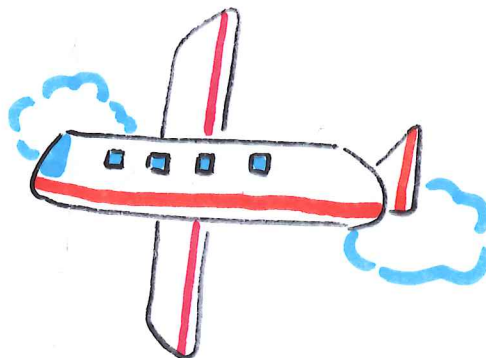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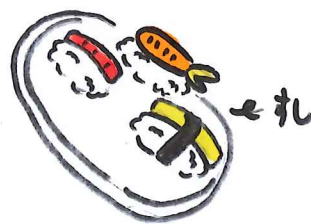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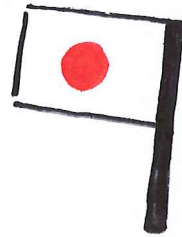


일본여행 간날

인천하늘초등학교 5학년1반 정예인

드디어 일본가는 날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갔다.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구름이 너무 예뻐다.
구름을 보는 사이에 벌써 일본에 도착했다. 너무 좋았다. 처음날엔 호텔에서 짐을 풀고,
일본시장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일본사람들이 대화하는걸 보고 정말 신기했다.
지금 일본어 공부를 하고있는데 대화하는걸 보니 나도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고싶은 마음이 들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가봤더니
사진으로만 봤던 후리고를 보았다. 일본에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 너무 신기했다.
다음날엔 닌텐도 월드를 갔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도착하니 정말 빨리 놀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거기엔 해리포터,미니언즈,스누피,다양하게 많이 있었다. 동생과 놀이기구를 타고,
신나게 논다음 호텔로 걸어가는데 일본 학교를 보았다 일본학교를 보니 정말 신기했다.
다음날엔 정말 입어보고 싶었던 기모노 체험을 했다. 기모노를 입어보니 내가 정말 일본사람
이 된 것 같았다. 기모노 체험이 끝나고 2층에 일본 박물관이 있었다. 거길 들렀는데 정말
신기했다. 마지막으로 고리던지기 체험을 했다. 고리를 5개 던지고 귀여운 스티커를 받았다.
정말 즐거웠다. 가족과 함께 오니 너무 재밌어서 다음번엔 할머니와 같이 오고싶다.



5학년반 에지



인천하늘초등학교